

campus magazine

# CAMPUS

2021,  
코로나로  
지친  
청춘들을  
위해

With Book

방구석이 미술관으로  
변하는 그 순간  
『방구석 미술관』

With Movie

언택트(Untact) 시대에  
'미소'가 건네주는 행복  
〈소공녀, Microhabi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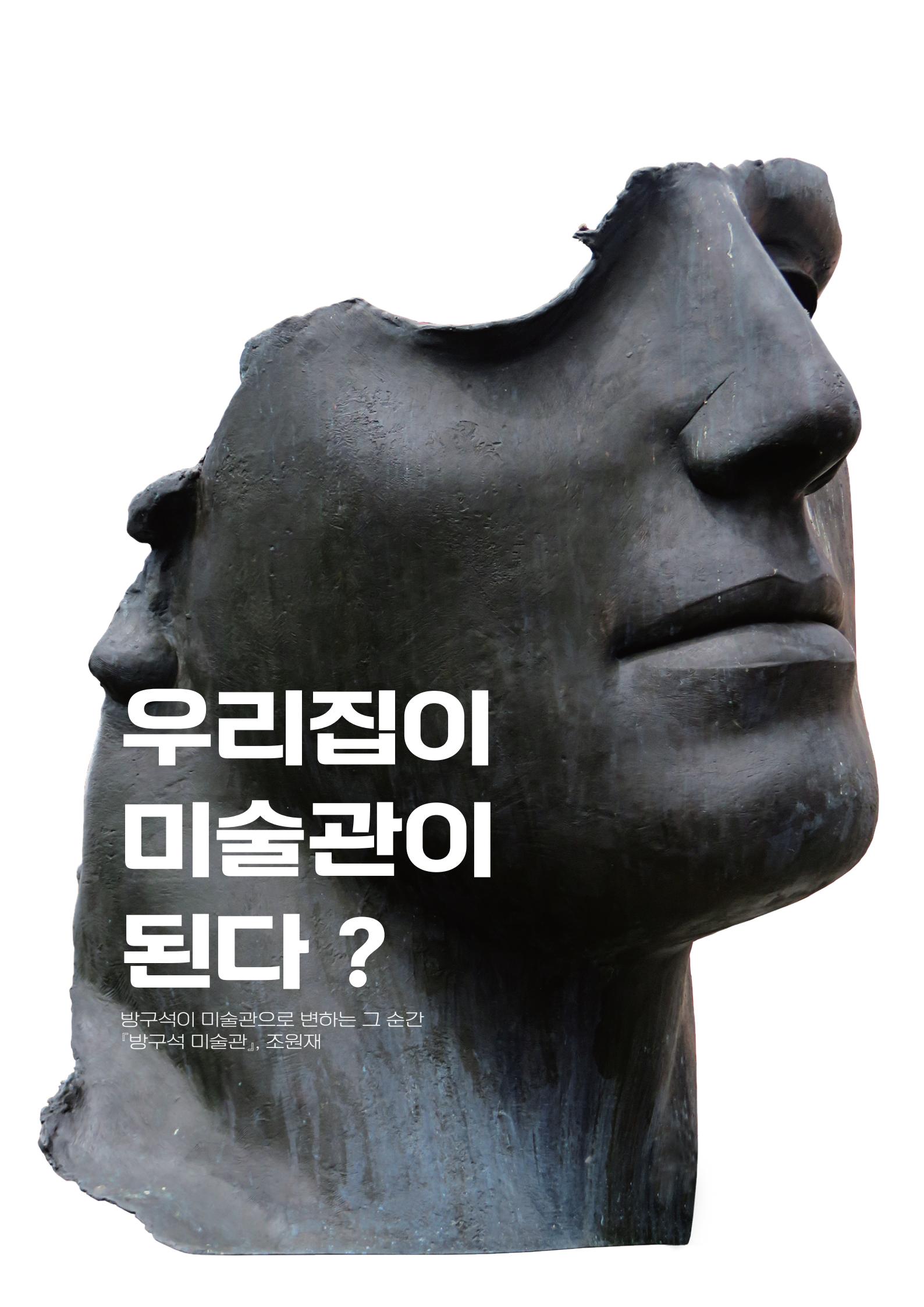


사진 출처 : 에브리타임 익명의 학우분

group 9

반복되는  
일상 속  
작은  
즐거움

Untact Travel  
초록으로 물든 여행



# 우리집이 미술관이 된다?

방구석이 미술관으로 변하는 그 순간  
『방구석 미술관』, 조원재

# 방구석이 미술관으로 변하는 그 순간 조원재, 『방구석 미술관』, 블랙피쉬(2018)

‘방구석’이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게 되었을까?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쉽게 접하게 됐을 것이다. 시간은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일정하게 흘러갔지만, 마음의 시간은 반대로 천천히 흘러갔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지금, 많은 기업, 경제, 상권 등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특히 문화예술시장은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크게 받았다. 그들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인 ‘직접적인 관객과의 소통’은 더 이상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처음엔 이에 대하여 혼란스러운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 적응했고 비대면 전시 및 공연이라는 새로운 기획 형태를 보여줬다. 긍정적이게도 이러한 방식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고, 기약 없이 어두울 것만 같았던 그들의 예술은 간접적으로 관객과 소통을 이루며 작은 빛을 찾았다. 조원재의 『방구석 미술관』은 언택트(un-tact)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합한 책이자 예술과의 소통 창구가 되었다.

『방구석 미술관』은 서양 미술의 대가라 불리는 뭉크, 프리다 칼로, 드가, 고흐, 클림트, 에곤 실레, 고갱, 마네, 모네, 세잔, 칸딘스키까지 총 11인의 화가와 그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의 서술 방식은 마치 미술관 도슨트(docent)에게 해설을 듣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이러한 서술은 그동안 우리가 뒤적거렸던 일반적인 미술서적과 다르다. 아무런 리듬 없이, 수많은 글자와 문단의 배열이 우리에게 지루함을 주고 결국 머리에 남는 것 없는 책을 읽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작가가 느끼기에도 대부분의 미술거적은 그러했다. 그래서 그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미술을 만나기 (p.7)”를 희망했다. “이제, 그 답을 찾는 건 관객인 우리의 몫입니다. (p.49)”, “이제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p.110)”와 같은 문장은 우리에게 직접 화가와 작품에게 말을 건네 볼 시간을 만들어 준다. 미술관에 서서 한참 동안 작품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행동이 이제 ‘방구석’에서 편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방구석 미술관』의 전시는 그 주제가 모호하다. 모든 전시에는 주제가 있다. 어떤 주제로 전시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는 전시를 감상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이 책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으로서의 예술가를 생생한 시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p.8)”를 통하여 인간적인 화가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은 작가의 의도는 알겠지만, 많은 화가들 중 11인을 선정한 이유와 11개의 목차가 어떤 기준으로 나열한 것인 것 알 수 없다. 큐레이터는 전시를 기획하기 위해 작품의 순서 및 물리적인 위치, 월 텍스트(wall-text)와 도록의 폰트까지 신경 쓴다. 전시를 위해서 작은 부분까지 고려하는 큐레이터의 시선으로 봤을 때, 『방구석 미술관』의 전시는 과연 그에 만족할만한 전시인지 궁금하다.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전시를 감상하기 위해 반드시 미술관에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품게 된다. 시, 공간적 제약 없이 작품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작품의 크기, 색감, 냄새, 질감, 분위기 등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작가 그리고 작품과 소통한다면 그 물리적인 것들이 과연 중요할까? 『방구석 미술관』은 필자에게 시대가 변함에 따라 바뀌게 될 전시의 모습에 대한 문제를 던져주었고 진정한 전시 감상 방법에 대해 고찰할 수 있었다. 이 문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 당신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언택트(Untact) 시대에 '미소'가 건네주는 행복  
(소공녀, Microhabitat), 전고운



# 언택트(Untact) 시대에 ‘미소’가 건네주는 행복

〈소공녀, Microhabitat〉, 전고운, 2017

청춘의 삶은 그 자체만으로도 찬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청춘의 빛남을 어둠으로 내몰게 하는 요소 중 하나인 취업은 요즘 젊은 세대를 끝없이 허덕이게 하는 대상이다 취업장벽 앞에 우리는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 둘 놓아가며 행복해지기를 외면한다. 이렇듯 영화 〈소공녀〉는 그런 청춘의 고달픈 인생의 순간을 다양한 인물의 일상으로 비추며 그려냈다. 청춘의 공허한 삶과 벅찬 현실에 타협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준 이 영화는 ‘행복’이 기성세대가 말하는 좋은 집과 직장이라는 조건 외에도, 평범한 것에서 올 수도 있다는 독특한 발상을 담았다. 즉, 영화 〈소공녀〉는 주인공 미소(이솜)를 통해 행복의 색다른 시선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미소’가 서식하는 환경의 유별난 매력을 선물한다.

돈은 없지만 거의 매일 한 잔의 위스키와 몇 개비의 담배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미소는 거침없이 오르는 물가에 집을 포기한다. 이러한 미소의 선택은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행복의 크기와 지속 정도 등을 따졌을 때, 우리는 ‘집’ vs ‘술과 담배’를 경쟁할 만한 상대로 치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소는 달랐다. 집이 아닌 술과 담배가 그에게는 유일한 안식처다. 누구나 사람들은 각자 자기 힘에 부치는 삶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다. 그 힘듦을 덜어 내주는 존재는 누구에게나 다르다. 영화는 미소라는 인물을 통해 집이 아닌 다른 존재가 행복을 가져다주기도 한다는 시사점을 던진다. 이는 영화의 묘미를 한껏 살리는 것은 물론, 우리의 청춘과도 닮아 있는 ‘미소’의 행복을 묵묵히 바라게 만든다. 자신을 돌보는 것도 버거운 세상에서 미소는 타인을 돌본다. 그는 과거에 함께 추억을 나눴던 5명의 친구와, 일을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한 업소 여성의 삶을 위로한다.

미소의 친구들과 고용주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듯싶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멍투성이가 가득한 사람들이다. 그런 미소는 그들의 아픔에 정다운 ‘미소’로 온기를 전한다. 그를 바라볼 때면 누가 누구를 걱정하나는 말이 자연스레 목구멍까지 오게 한다. 그런데도 미소는 어린 시절에 함께한 이들과 새로운 꿈을 찾아 나가려는 고용주에게 따뜻한 마음과 응원의 말을 건넨다. 집은 없고 직장마저 안정적이지 못한 미소는 행복의 기준과 가장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다. 하지만 영화는 그가 진정으로 행복의 규범에 근접한 사람임을 넘지시 나타내고, 그 사실에 우리는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누구는 미소가 술과 담배를 좋아하는 일이 ‘염치없는 사랑’이라 말한다.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사고와는 다른 선택을 한 그에게 날카로운 비난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연 미소의 친구들은, 그리고 영화 속 미소를 바라보는 우리는 그를 비웃을 처지에 놓여있을까? 평범하게 현실에 순응하며 살았던 보통의 사람들이 때 타지 않은, 맑고 천진난만한 미소에게 오히려 위압감을 느껴 행복의 맛을 알고 있는 그에게 질투가 났던 것은 아닐지.

“난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여행 중인 거야.” 이처럼 미소는 오늘도 소소하고 작은 행복을 위해 안정을 주는 집, 의식주 중에 주(住)를 포기한 채 좋아하는 것들을 지키며 여행 중일 것이다. 사람의 접점이 줄어든 언택트 시대에 우리에게 익숙함은 지루함으로 변해갔다. 삶의 무료함이 찾아온 때, 이를 견뎌내기 위해 우리는 막연히 행복을 찾는다. 영화 〈소공녀〉는 행복의 다른 관점을 깨닫게 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새삼 돌아보게 하는 고마운 작품이다. ‘따뜻한 온기’를 몸소 느끼지 못하는 시기에 갖은 고난이 닥쳐와도 웃음을 잊지 않는 미소를 바라보며, 우리는 따뜻함을 얻어 가게 될 것이다. 미소와 우리의 찬란한 청춘을 상기하고, 또 앞으로의 날들을 응원하며!



# 푸르른 숲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여행 가이드 - <초록으로 물든 여행>

사진 출처 : 강효림님

# 초록으로 물든 여행

비대면 문화는 전세계를 낯선 풍경으로 물들여 놓았다. 마스크와 함께 했던 지난 날은 자연의 표정을 확인하기에 너무 어려웠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행을 포기하기엔 이르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했던가? 우리는 ‘랜선여행’이라는 또 새로운 매력의 여행 방법을 만들었다. 기존 여행의 틀을 과감히 깨버리며, 4명의 문화매거진 기자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찾아 ‘초록’의 길을 밟았다. 곧 다가오는 여름 날, 발 딛고 있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오감을 활용한 온라인 자연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몇몇 감각은 독자들의 상상력에 맡기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워하는 그 기분과 비슷하길 바라며!

먼저 소개할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국립수목원’이다.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구목원의 공식 채널로, 집에서 수목원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몇 가지 코너 중, 우선 ‘국립수목원 걷고 싶은 길’ 코너는 수목원 내 여러 테마길을 담는다. 음악과 함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랜선 숲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또 ‘언\*제\*나 국립수목원’ 코너에서는 수목원 내에서 볼 수 있는 꽃길이나 나무 특산 식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영상으로 만나는 한국의 수목원 식물원’ 코너에서 전국의 수목원들을 둘러 보면, 자연이 주는 기분 좋은 휴식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엔 e-book을 통해 볼 수 있는 자연의 세상이다. 코로나 이후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과 동시에 플랜테리어(plenterior)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e-book 『반려식물 인테리어』는 플랜테리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로 보는 식물은 마치 실제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오고, 눈앞에 펼쳐지는 초록색의 향연은 우리를 식물 속으로 스며들게 한다. 페이지를 넘기며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과 인테리어의 조화는 자신의 공간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식물과 함께하는 것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상상하게 된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정원으로 변하는 시초에 이 e-book이 함께하길 바란다.

지금까지의 여행지를 통해 시각적인 즐거움을 느꼈다면, 이제부터는 직접 체험해보며 자연을 느껴보자. 서울 식물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에는 다양한 체험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다. 열매 컬러링, 구근 식물의 꽃 컬러링과 같은 보태니컬아트 클래스, 리스 만들기와 겨울새 먹이 만들기 등의 DIY 클래스까지 많은 콘텐츠를 보며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체험해본다면 더욱 푸프른 언택트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비건 레시피와 일상(V-log) 등을 주로 소개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초식마녀 Tasty Vegan Life’였다. 자연 여행과 맞춰 채식에 동참해보기로 도전한 우리는 ‘쉬운 채식 요리 레시피’ 중 <두부 오이 비빔국수> 영상을 감상했다. 영상에서는 만드는 방법을 보여줌과 동시에 먹는 모습까지 보여준다. 우리는 요리법대로 만든 후, 초식마녀와 함께 먹는 재미를 누려갔다. 요리법이 누구나 따라 하기 쉽게 돼 있어 좋았고, 친숙하면서도 신선한 맛에 잠깐이지만 기분 좋은 채식 생활이었다.

앞의 체험들을 끝으로 우리는 마침내 여행을 마쳤다. 여행 후 남는 헛헛함과 아쉬운 마음은 분명 적었지만, 그럼에도 행복한 시간이었다. 누군가는 “이게 어떻게 여행이야?!”라고 말하며 익숙하지 않은 여행의 틀에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가?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언택트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잠시 나에게 쉼을 제공했다는 것 그리고 눈을 통한 즐거움뿐만 아니라 손과 입까지 여러 감각에 색다른 즐거움을 선물했으니 잠시 행복했으면 된 것이다.

# Epilogue



이주은

아동학과 2학년

휴, 무사히 활동을 마쳤습니다. 문화 매거진을 기획하고, 제작한다는 말에 흥미가 생겨 약간의 망설임을 지닌 채 새로운 도전에 임했습니다. 중간중간 지치고 벅찼던 때가 많았지만, 끝에 와서 생각하니 다 유의미한 추억들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글 쓰는 일을 넘어, 누군가에게 읽히기 위해 쓰는 글은 더욱 쉽지 않은 듯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읽어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고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모든 노력이 빛이 되는 순간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쁜 순간입니다. 다가오는 여름에, 저희 잡지가 그 여름을 들려싼 좋은 기억 중 하나로 자리잡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진

컴퓨터학과 2학년



심은혜

크레이터학과 2학년

'매거진'을 목표로 팀원들과 함께 글을 쓰고 다듬는 과정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 특히 언택트 시기, 독자를 고려한 글쓰기를 하면서, 이 시대의 필요한 글을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 활동을 통해 시간이 지나도 가치와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다고 느꼈고, 함께 고생한 팀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강효림

크레이터학과 2학년

모든 일의 시작은 늘 어려운 법일까요? 해당 주제에 맞춰 글을 쓰려하니 막막한 마음에 세 시간 동안 노트북 앞에서 아무 것도 쓰지 못했던 과거 저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후기까지 마무리 지은 저희 팀원들 그리고 저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다양한 글을 접해보면서 생각하고,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기에 저에게 매거진 제작 시간은 너무 소중했습니다. 만약 다음 매거진을 제작하게 된다면 그때 주제는 더 이상 언택트가 아닌, 희망이 가득한 주제이기를 바랍니다.

# 문화매거진기획과제작(01) 9조

## 강효림, 심은혜, 유희진, 이주은

PPT 제작 및 팀장 : 강효림

잡지 디자인 : 유희진

발표 : 이주은

발표 대본 작성 : 심은혜

영화리뷰 : 이주은

서평 : 강효림

여행 가이드 글 : 강효림, 심은혜, 유희진, 이주은

사진 출처 : Pixabay

폰트 : 나눔고딕, Rix 광안리, 조선일보명조

프로그램 : Adobe Photoshop, Illustrator 2021